

서울시 교육청·대형 입시포털, 국제캠 사실상 ‘분교 표기’

입학처, “유사학과·불분명한 학과분류 문제로 공격적 홍보 어렵다”

하나의 경희 #2 - ‘입학’으로 본 경희

이시은 기자 dltldms77@khu.ac.kr

서울시 교육청과 대형 입시포털 대다수가 국제캠퍼스(국제캠)를 서울캠퍼스(서울캠)와 분리 표기하고 사실상 ‘분교 표기’를 명시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대형 입시포털 사이트(대성 마이맥, 종로 e-class, 중앙 uway교육, 진학사, 이투스, 메가스터디, 비타에듀, 대학인)의 입시자료는 8곳 중 2곳만이 양 캠퍼스를 하나의 ‘경희대’로 명시한 상태다. 이 외 6개 사 모두 ‘대학 입시정보 공시’, ‘모의 지원’ 등 자사의 모든 콘텐츠에 우리학교를 ‘경희대 - 경희대(국제)’로 분리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고등학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자료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서울특별시교육정보연구원 발간 ‘2015 대입 진학지도 길잡이(2014.11.27. 발간)’마저도 위 포털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학교의 명칭·정보를 분리 표기했다.

법적 분교만 캠퍼스 분리 표기 성균관대는 단일표기하고 있어

이 같은 표기방식은 소재지가 서울인 학교 명칭을 단독 기재한 채, 다른 한 쪽에는 ‘지방캠퍼스 명칭’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고려대 - 고려대(세종)’, ‘건국대 - 건국대(글로벌)’ 등 타교의 법적 분교들과 동일한 표기방식이라 자칫 입학에 고려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각 대학의 캠퍼스들이 지방 명칭을 떼고 ‘글로벌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등으로 이름을 변경해 오고 있어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성균관대는 위 표기가 모두 단일명칭으로 통일돼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입시정보 표기가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경기도 영역고등학교 진학진로부 측은 “교육청 등 공적 자료를 포함, 대형 학원가·입시포털의 프로그램 2~3개를 활용해 학생들을 지도한다”며 “현재 진학지도를 진행하는 대다수 고교들이 이런 구조라고 보면 된다”고 현재의 진학지도 방식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 자료에 대해 동대문구 A고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는 “서울시내 고등학교

교들은 교육청 자료 50%, 사설학원 자료 50%를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교육 시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26년간 사설학원에서 고교 입시진학을 지도해 온 김민정 전 EBS 강사는 “일선 학원 강사에게는 당연히 일반 고교 교사처럼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강사 대부분이 대형 입시포털의 정보에 의존하는 형태다”라고 말했다. 연간 사교육비 규모만 약 18조원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에서 이 같은 상황은 우리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입시포털의 정보 중 가장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요소는 단연 대학별 점수를 표기하는 ‘배치표’다. ‘대학의 서열을 부추긴다’는 일각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이들의 실질적인 파급력은 매우 크다. 한양대 등 일부 사립대는 과거 학원 측에 적극 항의하며 소송까지 불사했던 이력도 있다. 반면 우리학교의 ‘배치표 성적’은 전반적으로 실제 입학성적보다 낮게 표기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양 캠퍼스의 ‘분리 표기’ 문제가 겹치면서 오히려 재학생들이 온라인 상으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는 추세다. 한 범희(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1) 군은 “우리학교는 이런 사설학원의 표시들이 대외적 이미지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공식적인 대응이 없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입학처 측은 “일부 입시학원의 배치표 성적이 실제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입시학원들이 자체 계산식을 통해 성적을 내는 만큼 우리의 실제 성적대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분리 표기’에 대해선 입학처 측은 “충분히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 국제캠 입학처 측은 “고교 연계 프로그램, 입시자료 발간 통일 등 이원화 캠퍼스 홍보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며 “2014년엔 입시포털 측에 공문을 보내 분리 표기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입시정보 업체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중앙 uway교육 콘텐츠사업팀 이승혁 차장은 “실제로 지난해 초에 경희대 측으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 이를 통합했었다”며 “하지만 경희대는 캠퍼



서울	가	자연	경희대	간호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2	합격인원
서울	가	자연	경희대	물리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95	합격인원
서울	가	자연	경희대	생물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3	합격인원
서울	가	자연	경희대	수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2	합격인원
서울	가	자연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99	합격인원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유전공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0	합격인원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응용물리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89	합격인원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응용수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1	합격인원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응용화학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502	합격인원
경기	나	자연	경희대(국제)	전자정보공학과	일반전형	국·수·영·탐	표·백	498	합격인원

스별로 문·이과가 혼재되어 있고, 통합 표기시 유사 학과의 명칭에 혼란이 있어 학부·모·진학지도 교사로부터 항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통합표기를 5개월 정도 유지하다가 이내 폐기했다.

대학측 배치표 분리 표기 시정 요구 입시정보업체 ‘혼란’ 향의로 난색

‘대외적 인식’의 문제는 사실 우리학교 입학처의 오랜 고민이기도 하다. 국제캠 입학처 김진상(전자·전파공학) 입학처장은 “입학처는 학교의 ‘통합’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곳이다”라며 “하지만 유사학과 문제 등 ‘불완전한 통합’으로 인해 우리도 ‘공격적 홍보’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입학처는 그간 입학생들의 성적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 오다가 작년 입시부터 최저학력제도를 통일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김 처장은 “내부 분석결과, 사실상 외국어대학을 제외하고는 국제캠 전체가 서울

캠과 동일한 성적대의 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다”며 “때문에 최저학력제도, 입시요강 통합과 순서 변경 등 여러 가지를 통일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이원화’로 인한 분리 표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입학처가 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처장은 “우리학교 같은 상황에서 프라이م 사업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덧붙였다.

프라이م 사업은 교육부가 발표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 양성 방안’ 시안에 따른 사업으로 지난해 21일과 27일에 공청회가 열렸다. 일각에서는 취업에 목매는 구조개편이라는 지적이 상당하나, 우리학교의 경우 캠퍼스 통합관련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주장 또한 공존한다. 사업 내용으로는 ‘학사구조·제도 개편’, ‘캠퍼스 간 정원 조정 유도’, ‘학과 통폐합·학과간 정원 교환’, ‘학문간 융복합’, ‘학과제의 학부제로 전환을 통한 다중·연계전공의 유도’ 등이 있다. 대학본부 측은 프라이م 사업과 더불어 ‘일의 순서’를 강조하면서

◀ 중앙uway교육 입시정보 공시의 일부. 위 회사는 우리학교의 공문을 받고 지난해 초 표기의 통합을 시도했다가 유사 학과명, 캠퍼스별 문이과 혼재로 인한 입시혼란 등을 이유로 다시 분리했다.

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미래정책원 신상협 원장은 “프라이م 사업이든, 유사학과 문제든 학교 측은 학생들의 ‘진정한 교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프라이م 사업 기회로 삼는다”지만 구체적 계획 수립은 미비한 상태

하지만 미래정책원 학술진흥팀 유지연 팀장은 “아직 프라이م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화 된 계획은 없다”며 “유사학과 문제·계열 조정 문제 또한 고려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입학처 측 역시 “대외협력처와 협력해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아직 가시화된 사항은 없다. 이처럼 대학본부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오는 12일 치러지는 ‘수능’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하나의 경희’는 두 개의 대학으로 배치표와 고교교사의 지도 속에서 남을 전망이다.

2015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66년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교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올해로 7회 짝을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학문과 평화’로 상징되는 경희의 핵심가치를 드높인 구성원을 발굴해,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접수일시	2015년 10월 15일(목) ~ 11월 17일(화) 17:00
대상	교수, 교직원
시상분야	교육, 연구, 실천 (3개 부문)
시상인원	분야별 약간 명
추천방법	1. 방문 : 서울캠퍼스 본관 410호 대외협력처 홍보실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통합사무실 대외협력처 홍보실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본관 410호 홍보실
	3. E-mail : pr@khu.ac.kr
선정절차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수여식	2015년 12월 中 (Magnolia 2015-1부 목련회의)시 시상
문의	대외협력처 홍보실 02-961-0023~6

대외협력처

2015 하반기 분야별 취업특강 일정표

구분	과목명	교수명	특강 제목	일시	장소
月	면접정보와 프리젠테이션 스킬	박창욱	1. (9/21) 통념을 넘는 취업전략 2. (10/5) 취업심리학-나와 면접관의 심리 3. (11/2) 해외취업과 대우의 Global YBM 4. (12/7) 방학의 의미와 취업 (전략적 이용) 1. (9/8)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핵심역량 2. (10/13) 조직이해와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3. (11/10) 성공적인 면접전략 4. (12/8) 외국계 기업 취업 전략	월 12:00 ~ 14:00	청운관 B117호
			1. (9/16)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1 2. (10/21)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2(자소서 합격·불합격 사례 분석) 3. (11/8) 취업 논술 작성법 1 4. (12/16) 취업 논술 작성법 2	화 12:00 ~ 14:00	청운관 B117호
水	취업논술과 기획서작성법	배성복	1. (9/16)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1 2. (10/21)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2(자소서 합격·불합격 사례 분석) 3. (11/8) 취업 논술 작성법 1 4. (12/16) 취업 논술 작성법 2	수 13:00 ~ 15:00	청운관 B117호
			1. (9/16) 금융권 취업상담 2. (9/30) 금융권 취업상담 3. (10/7) 금융권 취업상담 4. (10/28) 금융권 취업상담 5. (11/11) 금융권 취업상담 6. (11/18) 금융권 취업상담	수 17:00 ~ 18:00	네오관 104호
木	직무적성검사 분석 및 연구	안진성 양광모	1. (9/10) 대기업 직무적성검사의 주요 출제영역 및 대응방안 연구 (양광모) 2. (9/24) 수리(응용수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안진성) 3. (10/8) 상식(경제, 경영, 시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양광모) 4. (10/22) 공간지각력(시각적사고력)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관인경) 5. (11/5) 추리(논리, 판단, 명제)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김익중) 6. (11/19) 수리(도표매치테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안진성) 7. (12/3) 상식(한국사 및 역사에세이) 대기업 출제유형 분석 및 대응방안 (양광모) 8. (12/17) 수리(3도식, 수열추리) 대기업 출제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안진성)	목 15:00 ~ 17:00	네오관 103호
금	외국계기업 취업총론	전은영	1. (9/18) 외국계기업 취업 프로세스 2. (10/16)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3. (11/20) 영어면접 요령 4. (12/18) 모의면접 실시	금 17:30 ~ 19:30	청운관 B117호

※ 12월 특강 장소는 추후 재공지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5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이수 및 실적등록 안내

2015학년도 2학기 자유선택과목 “사회봉사 1,2,3”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 가능 학생
가. 성적부여 방식: P / F (2014학년도 부터 P/F 모두 성적표에 기재) 나. 최대 취득가능학점: 학기당 1학점, 총 2학점 (단,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최대 3학점)
- 사회봉사 학점취득 변경내용 (2013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

항목	2012~2학기 이전	2013~1학기부터
	－ 온라인캠퍼스 이수 후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 재·휴학에 관계없이 입학 이후 실시한 봉사활동 32시간으로 학점 인정
취득요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회봉사시간으로 인정 불가 ① 교외봉사 :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 서울동행프로젝트(http://donghaeng.seoul.kr),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www.vms.or.kr)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② 교내봉사 : 교내부서 및 단과대학에서 주관하는 봉사 (단, 취업진로지원처와 사전협의 되어야 함) 를 실시한 경우 ③ 현열 : 입학 후 실시한 본인의 현열중서 원본을 기증한 경우 (현열중서 원본 이외 다른 서류 제출 불가)

문의 :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

● 사회봉사 학점인정신청 및 실적등록신청		
구분	교과목 이수 (학점인정신청)	실적등록
대상	2015-2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신청 학생	전체 재학생 및 휴학생
서류 제출기간	2015년 11월 2일(월) ~ 2015년 11월 27일(금) 17:00까지 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음	1. 실적등록 신청서
제출서류	1. 학점인정신청서	
	2. 봉사활동확인서 원본 및 사본	
	3. 소감문	-

－ 제출서류양식은 http://service.khu.ac.kr/ 접속 후 정보마당-자료실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회봉사 관련 기타 상세사항은 공식홈페이지 http://www.khu.ac.kr - [공지사항] - [일반] 에서 확인

- 기타 세부사항
가. 봉사시간은 1일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한다.
(같은 날 실시한 현열+봉사활동 실적 제출할 경우도 적용)
나. 현열중서 기증을 통한 봉사시간 인정은 입학 이후 실시한 현열에 한하여, 교과목 이수에 요구되는 32시간 중 총 16시간까지 인정 가능하며 연도별 인정시간 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분	2006, 2.28 이전	2006, 3. 1~2011. 2.28	2011. 3. 1 이후
현열중 1당 인정시간	15	8	4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